

나주시 어르신 복지 ‘생활 체감형’ 전환

일자리·스마트 경로당 대폭 확대
초고령사회 대응 생활밀착형 서비스
목욕비, 이·미용비 등 일상속 돌봄

나주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올해부터 어르신 복지정책을 ‘생활 체감형 복지’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시작은 단순 지원을 넘어 일자리, 건강, 안전, 돌봄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685명 늘어난 4710명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노인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돌봄 보조 등으로 확대했다.

스마트 경로당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20곳에서 올해는 40곳을 추가 구축해 경로당을 단순 쉼터가 아닌 ‘생활 돌봄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회상 시스템과 응급 안전장치, 건강·여가 콘텐츠를 접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경로당 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치



나주시가 관내 경로당 620곳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냉장고에 이어 올해부터는 가스레인지까지 지원해 급식 환경을 개선하고, 출입구 정비와 안전 손잡이 설치도 250곳으로 늘린다.

예방 중심의 건강 복지도 강화된다.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생활 중심의 어르신 복지를 지속해서 강화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고령 친화 도시,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3개 강좌 36명 30일까지 신청

화순군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2026년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 3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청소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보디가드 피구와 스토리텔링 마술, 달콤한 화순 ‘수련관 딸기 시루 케이크 만들기’ 등 총 3개 강좌로 운영된다.

‘수련관 딸기 시루 케이크 만들기’ 과정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로 운영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식적 조건과 질적 수준을 갖춘 청소년수련활동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참가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누리집(https://hwasunyouth.kr/)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접수 시작 첫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최종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서봉섭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과 창의적 예술활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방학 동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겨울방학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읍 잠암마을 주민들이 지난 24일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갖고 자축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잠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 안평2리 잠암마을에서 김한중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공사를 마친 도로는 안평역에서 잠암마을 회관까지 이어지는 514m 구간이다. 이전까지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고령 주민의 경우 교통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민원을 접수한 장성군은 지난해 사업비 10억원 을 투입해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갔다. 도로 폭을 7

m까지 넓히고, 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이용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다.

최근 확·포장 공사 마무리되자 잠암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준공식을 열어 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잠암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장터’ 새해 이벤트·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

농·특산물 전 품목 20% 할인

담양군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농·특산물 전문몰 ‘담양장터’에서 새해 이벤트와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새해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담양장터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댓글을 통해 새해 다짐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설을 맞아 마련된 특별 할인 행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며 떡갈비와 딸기, 한우, 쌀 등 담양 농·특산물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담양읍 면양정로 730에 자리한 오프라인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damyangmk.kr)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20%가 추가 적립된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담양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도시 직거대 장터 운영과 농특산물 특판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설을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담양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 4년 연속 ‘우수 박물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고려청자박물관은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4회 연속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전남 지역 내 군 단위 공립박물관 중에서는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인력·재정 관리의 적정성,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와 18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세계적인 청자 문화 유산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려청자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문화 유산의 가치를 이어가는 박물관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영천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조사·연구의 내실화를 다지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람객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 청년 공론 플랫폼 ‘퍼블릭포럼’ 창단식

초대 회장에 박용호씨 취임

장흥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공론 플랫폼인 퍼블릭포럼(장흥청년단체)이 공식 출범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퍼블릭포럼이 최근 창단식을 갖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열린 공론의 장’ 마련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창단식 행사는 창단 경과 보고와 초대 회장 취임식, 창단기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용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청년들은 정책의 대상이었지 주체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퍼블

릭포럼은 청년들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실천적인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흥의 미래는 청년의 참여 없이는 논할 수 없으며 청년 스스로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의견을 모아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포럼과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퍼블릭포럼은 앞으로 ▲청년 정책 제안 포럼 ▲지역 현안 토론회 ▲청년 리더십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열린 공론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서해안 갯벌
고령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해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암반서식지



갯벌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갯벌로 다른 행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형체, 해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행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르어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르어 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